



국내 최초로 댐 사면을 녹화한 장흥댐은 댐 하류 사면 전 구간에 친환경 토양층을 만들어 수물지 내의 자생수목을 이식,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탐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하루 10만 생활용수 공급 ... 전남 서남권의 젖줄

친환경 다목적 장흥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水), 그렇기에 물은 언제나 만물과 소통하며 흐른다. 깊은 산 한 방울로 시작된 물은 점점 커져 도도한 흐름의 물길에 되고 인간과 어우러져 문명을 일구어 왔다. 때론 그 길을 잠시 멈춰 댐을 이루고 다시 낮은 곳으로 임해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들고 있다.

영암 공성산에서 발원해 장흥과 강진을 거쳐 바다로 흘러드는 탐진강 물길을 막아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전남 서·남부 지역에 고품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다목적댐 장흥댐. 이전 전남 서·남권의 젖줄이 된 장흥댐을 찾아 수자원의 가치와 댐의 기능, 관리단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본다.

있다.

장흥 다목적댐이 들어서면서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서·남부권 9개 시·군 54만여명에게 하루 평균 10만t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하류 지역의 홍수예방과 하루 200가구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522Gwh의 무공해 청정 수력에너지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꾸준한 시설 확충으로 만성적인 식수난에 시달려 온 남서해안의 도서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어 전남 서·남부권역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흥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은 2015년까지 함평군을 포함 10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흥댐 덕장정수장. 이 곳을 통해 목포 등 전남 서남권 지역 9개 지자체에 수도물이 공급된다.

하수처리시설 6곳·인공습지 3곳 조성

물문화관·생태공원... 관광명소 자리매김

급할 예정으로, 생산능력을 현재 하루 15만m³에서 20만m³로 늘리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전남 서남권의 중요 식수원인 만큼 장흥댐 관리단의 깨끗한 장흥댐 보전을 위한 노력은 특별하다.

매년 댐 유역 지자체와 함께 홍수기 전 오염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율관리협약을 맺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댐 상류지역에 고도처리 공법을 갖춘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댐 건설과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때 나온 하수처리 방류수와 빗물의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갈대과 부들을 심은 15만1000m² 규모의 인공습지 3개소(신풍, 용문, 울천)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에 댐 수원지인 탐진호에서는 준공 이후 녹

“먹기 좋고 건강 이로운 물 공급”

고영환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수요자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을 찾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명품 수도물 생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환(56)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은 “이제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먹기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라며 “관리단은 미국수도협회(AWWA)가 정한 최고등급인 ‘5-Star’ 수준의 수도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단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각종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15만m³인 하루 생산능력을 시설 보강을 통해 20만m³으로 늘리고 해남과 진도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해남에 추가로 펌프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 단장은 이렇듯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고품질의 수도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인 탐진호를 보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호로 유입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마다 홍수기에 이르면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폐농자재 등의 부유쓰레기로 물살을 막는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거나 몰래 버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관련 “어류의 산란 시기인 4~7월의 어로행위는 우리 고유의 어족자원을 멸종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모든 감시체계를 가동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단장은 “앞으로도 수질보전과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힘쓰는 한편 지역민과 상생하는 환영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y Factory Dream Service

장성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광주 연구개발 특구

장성 나노 산업단지 분양

사업규모 : 902천㎡ (27만평) / 사업비 : 1,268억원 / 조성비가 : 675,322원/3.3㎡

구분	산업	지하	주거	상업	공원·녹지	계
면적 (천㎡)	464 (51.4%)	74 (8.2%)	29 (3.3%)	18 (1.9%)	317 (35.2%)	902 (100%)

사업개요

- 명 칭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남면 신태리 일원
- 면 적 : 901,865㎡ (272,813평)
- 개발기간 : 2011~2015 (공영개발)

입주시 기업혜택

- 건축허용연적 : 건폐율 80%, 용적률 350%이하
- 조세감면
 - 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 법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시)
 - 취·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②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지역 : 광주연구개발특구(장성·나노산업단지, 첨단3지구)
 - 대상 : 특구법에 의한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 연구소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안에 설립한 기업
 - 첨단기술기업 :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기술 등 기술첨위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높은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이상, 첨단분야 매출액 30% 이상)
 - 감면내용 : 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창업·벤처기업·경영안정·경영력강화 자금)

내 공장 마련의 꿈

장성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해 드립니다.

정보기술분야(IT)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영상장비제조, 전기장비(28) 제조업

생명과학기술분야(BT)

식료품(10), 음료(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제조업

나노기술분야(NT)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23),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 및 장비(29) 제조업

기타 제조업

가구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환경기술분야(ET)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제조업

*상기 토지이용계획 및 발전계획은 입주기업요구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0년기업의 성공파트너
www.kicox.or.kr

문의 및 접수

장성군 지역경제과 (☎ 061-390-7484~6, 7771, 7363)
한국산업단지공단 장성사업단 (☎ 070-8895-7774~6)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산업단지개발실 (☎ 070-8895-7369)
※ 산업단지개발사업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분양정보 바로가기)

MERIT

산업환경 : 반경 6km 이내에 첨단과학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산업연계 환경 우수
생활환경 : 남측과 서측 6km 이내에 신규조성되는 장성·덕성행복마을 주거단지와 광주·함단·수원·신성동 대규모 택지 지구가 위치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문화시설 이용 가능
연구환경 : 광주 R&D 특구지정 및 사업지내 나노바이오연구원,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입주 등 나노분야 R&D 인프라 지속 확충 예정